

민생경제 회복 위해 전통시장 살리기 ‘집중’

전주시, 경제 회복 촉진 위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전통시장 특화행사 등 지원 확대

전주시가 최근 혼란한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살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과 디지털 역량 강화, 문화행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전통시장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통해 생업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과 방문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11억 9200만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모래매시장 5·6구역 아케이드 노후 부분 개보수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바다 철판 교체사업 △중앙상가 상수도 급수시설 보수 및 천장 석면 도장공사 △남부시장 옥상 방수공사 및 아시안지원센터 증축 공사 등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안전한 쇼핑 공간으로 만들어 상인들의 영업을 돕고 고객들의 안전한 유입을



전주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집중한다. 사진은 2024 신중앙시장 제2회 한사발 맥걸리 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모습이다.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내 문화 행사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널리 소개하고 상인과 시민들이 한데 어

우러질 수 있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전주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자인 '남부시장 야시장 문화행사'를 비롯해 '모래매시장 치맥가뭇 페스티벌', '한사발맥걸리축제', '너중은밤에 가뭇축제'와 같은 전통시장별 특화행사를 남부시장과 전북대대화로상점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전통시장 내 문화행사가 확대되면 상인들에게는 방문객 증가를 통한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

민들도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를 체험하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적인 쇼핑공간이었던 전통시장이 과거와 현대,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신중앙시장의 경우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노령화된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유통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하는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1차년도인 올해는 총 8500만 원을 지원받아, 신중앙시장 상인들이 참여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의 도약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김욱기 기자

예비 창업지원 참여자 모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도내 12개 시군 시제품 제작 지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 센터장 강영재)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도내 12개 시군이 청년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시군청년혁신가(예비) 창업지원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2019년도부터 운영된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은 작년 220명을 모집하여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선발 단계를 거쳐 최종 33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팀은 시제품 제작 지원(팀당 1,300만원), 1:1 컨설팅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교육, 투자 IR,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도내 창업 유관기관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받았다.

올해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이며, 모집 규모는 도내 총 33명(팀)이다.

본 사업 참여자는 기업이 정신 제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등 단계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수 후 역량평가를 통해

최종참여자로 선정 시 시제품 제작비(13백만 원), 전문가 1:1 매칭 상담 컨설팅 및 도내 창업 유관기관 후속 연계사업 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강영재 전북센터 센터장은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화분야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과 지원을 통해 도내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사업이다"며, "발굴된 팀들에게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사업과 지원, 컨설팅 등을 함으로써 지역 특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고 센터 내 다양한 지원사업과 이어지도록 성장 단계별 후속연계 지원, 나아가 씨드투자와 글로벌 진출 등 스케일업 사업까지 계속 이어달릴 수 있도록 혁신창업가들의 지원군으로서 도내 창업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촌진흥청, 미생물로 영농 폐비닐 신속 분해 기술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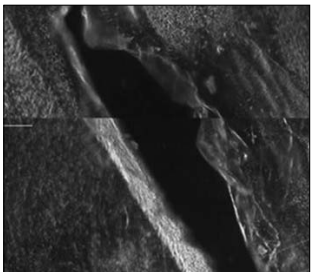
최대 4.5배 빠르게 미생물 분해... 페플라스틱 저감 기술 등에 활용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경상국립대학교(장유신 교수 연구팀)와 함께 영농 폐비닐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선발하고, 이를 활용한 분해 공정 기술도 개발했다.

영농 폐비닐 주성분은 매우 단단한 화학 구조를 가진 난분해성 저밀도폴리에틸렌으로 자연 분해가 어렵다.

저밀도폴리에틸렌은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에틸렌 단량체가 가지 구조로 연결된 고분자 물질이다.

주로 토양에 묻어 폐기하는 영농 폐



공정 처리 28일 후 저밀도폴리에틸렌 필름

비닐로 토양 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밀도폴리에틸렌을 친환경적으로 생분해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을 이용해 저밀도폴리에틸렌을 생분해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표면 산화에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보고돼 다양한 미생물 선발과 분해 공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저밀도폴리에틸렌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아시네토박터 노소코말리스GNJ001'를 선발하고 배양 조건을 최적화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된 저밀도폴리에틸렌 분해 속도보다 1.5~4.5배 빠른 미생물 분해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선발한 미생물을 양분이 풍부한 배지에서 대량 배양해 세포 밀도를 높인 다음 저밀도폴리에틸렌 필름이 포함된 배지에 넣어 생물반응기에서 함께 배양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28일 만에 저밀도폴리에틸렌 필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보고된 저밀도폴리에틸렌 분해 시간은 45~120일이다.

/김욱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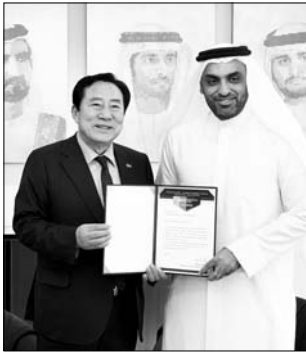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두바이 상의 CEO와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라쉬드 루타(Mohammad Ali Rashid Lootah) 두바이 상의 CEO와 간담을 갖고, 한-UAE 중소기업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24년 한국 중소기업의 UAE 수출은 19.8억 달러로 2023년 16.5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하였고, 특히 두바이는 전체기업의 98.4%가 중소기업으로 이들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루타 두바이 상의 CEO는 "두바이는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제약, 스마트팜 등 분야를 중심으로 두바이 투자사업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한데니 중기중앙회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과 UAE가 단순 수출입보다는 합작투자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두바이 상의에서 헬스케어, 제약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해 주면 한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라쉬드 루타 두바이 상의 CEO와 간담을 갖고, 한-UAE 중소기업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청해 5월이나 9월경에 한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하자"며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어 양국 간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중기중앙회와 두바이 상의는 2023년까지 세계 3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두바이의 투자환경 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욱기기자

전북개발공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협약 체결

전북개발공사는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김명수)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원 내 약 1만1,000㎡ 부지에 1,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사가 발

진소를 건설하고 운영해 생산된 전기

는 과학원이 직접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On-site 방식의 직접 전력구매계약으로, 한전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송전 비용을 절감하고 에

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On-site 직접 전력구매계약 사업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추진하는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